

“외국인력 입국 신속 재개해야”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 1478곳의 86.9% “입국 지연으로 연내 생산차질 우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배치되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아, 3월말까지 2,003명 입국에 그치면서

약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발생 여부는 ‘스미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57.7%)’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1.5%) 순으로 응답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차질 발생 문제와 관련,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 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등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재개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진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65.6%),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인 1실, 독립된 화장

실, 세면장 등)이 미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88.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소기업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 조감도.

군산신역세권 10년공공임대 잔여세대 공급

LH, 1006세대로 내달 10~11일 신청접수 14일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06호(74㎡ 190호, 84㎡ 816호) 중 잔여세대(42호)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후 10년 동안 임대료 거주후 분양전환 받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주택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만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역, 입주자자격, 소득, 자산, 과거당첨 등의 자격은 따지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

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최대한 환하여 임대료를 낮출 경우 74㎡형은 보증금 7,25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며 84㎡형은 보증금 8,80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다.

이번 공급주택은 온라인(LH청약센터)을 통해 주택행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42호)뿐만 아니라 예비자(102명)도 추첨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로 74A 4호, 74B 2호이며 84A 29호, 84B 3호, 84C 4호를 공급하고, 예비자는 74A 10호, 74B는 10호이며 84A 62호, 84B 10호, 84C 10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2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8월 10~11일 신청접수, 14일에 당첨자발표, 10월 14~16일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군산신역세권 B3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s-b3.co.kr)를 통해 LH와 소비자간 주택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자산관리 사업 강화

전북은행, 전문인력 VM
초청 간담회 시작으로
전문성 집중 예정



전북은행은 지난 28일 '자산관리 전문인력 VM(VIP Manager, 이하 VM)'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자산관리(WM) 사업 강화에 힘쓴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본점 PB센터에서 국한된 자산관리 상담의 한계를 벗어나 '자산관리 전문인력 VM(VIP Manager, 이하 VM)'을 지역금융센터 6곳(영암읍, 팔복동지점, 서신동지점, 안평교지점, 익산지점, 군산지점)에 배치하면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고객 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은 현재 프라이빗뱅크(PB) 개념의 직원이 영업점에 상주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에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북은행은 지역에 위치한 영업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고객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은행은 내부교육과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산관리, 세무서비스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고, 이번 배치된 VM들은 풍부한 경험과 함께 자산관리 전문교육을 수료한 우수 직원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관심사항 위주의 고객 친화적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2020 Start WM(VM)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VM의 열정과 포부가 집중되고 정기적인 미팅과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성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e-발효식품엑스포, 온라인 쇼핑몰과 협약 체결

코로나19 장기화 예상 따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전라북도도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주관하는 국제식품박람회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으로 전환 추진, 우체국쇼핑몰, 11번가 및 위메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금년 코로나19 장기화 예상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할 수 없게 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사업을 변경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온라인 판로활성화를 위한 업체 모집 공고를 추진 온라인쇼핑 MD

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북도내 발효식품, 전통식품, 일반 가공식품까지 약 250여개사의 온라인 기획전 입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기획전 입점 상품 노출, 할인쿠폰 제공,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고 등을 통한 도내 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6월 24일), 우체국쇼핑(7월 27일), 11번가(7월 29일)'와 온라인 공동 판로지원을 위한 언택트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했다.

e-엑스포 추진과 관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음을 따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또한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발효식품에 대한 정보와 체험거리 등을 구현, 기존 엑스포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온라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8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e-엑스포로 개최된다. 오는 8월 6일부터는 우체국 쇼핑몰에서 다양한 도내 우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우체국쇼핑몰, 위메프, 11번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북 우수제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엑스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중기 온라인 시장 진출 실전 마케팅 교육 성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29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대형유통망 입점'을 위한 실전 마케팅 교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촉진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대형유통망에도 입점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앉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전북중기청은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 마케팅 자문위원이며 온라인 쇼핑몰 전문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류동균 대표를 초빙했으며, 류 대표는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 △사업 성공을 위한 좋은 상품 개발 △MD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등에 대해 5시간 동안 강의했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대형유통망 전문 MD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입점설명회를 개최(8월 말)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MD와 1:1로 상담·컨설팅(9월 초)하여 대형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하림, 여름 보양식 닭고기 제품 추천

깊어진 장마와 코로나 19 여파로 외식이나 야외 활동이 어려운 요즘,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은 닭고기 보양식 요리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든든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활용법이다.

하림 프리미엄 무항생제 자연실록 통닭을 활용하면 외식 메뉴 못지않은 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만들 수 있다. 하림 황기백숙육 통닭을 활용하면 더 깊은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냄비에 물 3L와 함께 티백을 넣고 육수를 먼저 우려낸다.

육수가 우려지는 동안 닭의 지방을 제거한 다음 흐르는 물에 씻는다. 미리 불려 놓은 찹쌀과 밤, 마늘, 인삼 등을 닭 속에 넣는다. 육수가 끓으면 속이 찬 닭과 함께 대추, 인삼 등을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인다.

그릇에 닭을 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한방 삼계탕이 완성된다. 신선한 닭고기의 부드러운 육질과 한방 육수의 깊은 맛으로 집에서 건강한 보양식을 즐길 수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 시행

개발청, 입주기업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계약기간 선택 등 개정

새만금개발청(김현숙 청장)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기존 10년 → 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입주기업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부담완화
임대용지 입주계약(경신)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 기업 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을 완화했다.

이는 보증보험증권 비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입주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물 임대허용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구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한다.

기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해서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임대를 허용, 창업·연구 공간 제공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육성을 촉진한다.

입주 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투자혜택) 강화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구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면서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국산 쌀 · 우리 효모로 만든 '전통 소주'

농진청, 추석 전 9월 전국 4개 지역에서 출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산 쌀과 우리 효모로 만든 증류식 전통 소주가 추석 전 9월경 전국 4개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출시를 앞둔 증류식 소주는 농촌진흥청이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한 '전통 증류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이다.

경기 가평,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에서 각각 생산된 쌀과 N9이라는 소주용 전용 효모로 제조했으며, 기존 희석식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해 만든 전통주다.

현재 시중에서 소비되는 희석식 소주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제조한다. 희석식 소주용 주정 중 42.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정도 대부분 타피오카나 쌀 등 수입 농산물로 만든다. 전통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된다면 연간 약 36,000톤의 우리 쌀 소비효과를 볼 수 있다.

농진청은 증류식 소주의 대중화를 위해 증류 소주용 효모 N9을 선별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하고, 알코올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 8가지 검정 과정을 거쳤다. N9은 특히 균주도 등록돼 전통 증류소주 제조업체에 보급되고 있다.

또한, 쌀을 찌는 과정 없이 쌀가루 그대로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쌀발효법을 개발했다. 원료 처리 방법, 재료 배합 비율, 발효 기술, 증류 방법 등 생산 기술을 표준화해 한국농수산대학과 함께 기술 자문도 실시 중이다.

농진청은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증류식 소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체인 '우리소주연합' 결성도 지원했다.

'우리소주연합'은 재료 구입을 비롯해 공명병 제작, 홍보,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기존 전통 소주보다 판매 단가를 약 3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쌀 뿐만 아니라 보리나 수수, 옥수수 등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간편하고 발효 효율이 우수한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생산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